2026. 10. 18 제117권 42호

주일1부(묵상)예배

오전 7시30분 인도:김기중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송 영		찬 양 대
찬 송	*서서 42장	다 함 께
성 시 묵 상	108.임직식(2)	다 함 께
고백의기도		다 함 께
사죄의선언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함 께
찬 송	*앉아서 217장	다 함 께
기 도		김인택집사
찬 송 묵 상	(나, 강은숙권사)	다 함 께
봉 헌 송	*서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함 께
봉 헌 기 도		담 임 목 사
교 회 소 식	*앉아서	담 임 목 사
찬 양	주의 나라	샬롬찬양대
찬 송	637장	다 함 께
성 경 봉 독	역대상24:1~5,19(구약P.645,6)	담 임 목 사
말 씀 선 포	【직분과 직무】	담 임 목 사
말 씀 묵 상		다 함 께
성도의교제	*서서 55장	다 함 께
축 도	송영	담 임 목 사

오늘의 말씀 / 김승학 목사

역대상 24:1~5, 19 / 직분과 직무

성령강림절 후 스물한째 주일
직장선교주일

주일2부(전통)예배 / 오전 9시 인도:권훈목사

찬 송	42, 217, 320, 55장	다 함 께
교 독	108.임직식(2)	다 함 께
기 도		길건성장로
찬 양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호산나찬양대

주일3부(세대통합)예배 / 오전 10시30분 인도:정영오목사

찬 송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217, 320, 은혜 아니면	다 함 께
기 도		김봉수장로
찬 양	우리 기쁨이 되시는 예수	글로리아찬양대
파송과위탁		다 함 께

인도자 :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회 중 :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일4부(열린)예배 / 오후 12시 인도:담임목사

경배와찬양	소리엘찬양단
목 회 기 도	인 도 자

†**내주기도** : Ⅰ부 - 오범수 집사 / Ⅱ부 - 권오규 장로 / Ⅲ부 - 권용일 장로
청년예배 - 김유정 청년 / 찬양 - 한숙경 권사 / 수요 - 임현숙B 권사

†**이달의 강단 꽃장식** : 최종일 김선정 정민영 김학철 박상금 서광수 박상현 이옥희 황혜민

❀ 10월 예배위원 -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안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
Ⅰ	조주규 표현창 민영미 이명희	이경현	권명숙	정영수 김종관 권대기 권오덕 길건성 박수권 정위동 조대웅 황병락 사봉권 이국환 박영재
Ⅱ	권중익 정영수 한숙경 강은숙	강성갑	김경희	
Ⅲ	조재일 전윤호 김경옥 유영심	김상용	백은희	
Ⅳ	박경봉 김상용 김명옥 우현자	이석필	김미애	

주일5부(청년)예배 / 오후 1시45분

경배와 찬양 - 하느래워십 / 기도 - 도금숙집사

설교 - 요한복음6:5~13(신약P.152) / 내 손의 작은 도시락을 드릴 때 / **최성수목사**

주일오후찬양예배 / 오후 3시 (하늘씨앗어린이도서관 봉사자 헌신예배) 인도:서일교집사(실장)

경배와 찬양 - 새롬찬양단 / 찬송 - 446, 54 / 기도 - 안인순집사(총무) / 찬양 - 시온찬양대

성경 - 이사야1:18~20(구약P.969)-김종관집사(서기) /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 **이종숙전도사**

수요오전예배 / 오전 10시30분

경배와 찬양 - 예음찬양단 / 은혜나눔 - 동영상

설교 - 사사기16:4~9(구약P.389) / 98.소렉골짜기-유혹의 땅 / **담임목사**

수요저녁예배 / 저녁 7시 〈안동시 성시화를 위한 심령부흥회〉

강사 : 주승중목사(주안장로교회)

장소 : 안동동부교회

주관 : 안동시기독교총연합회

묵 상 노 트

"직분과 직무" (역대상 24:1~5, 19)

1. _____ 사역 (1~3)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던 사독과 아히멜렉에게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일반적으로 직분은 어떤 자리나 신분에 부여된 직책상의 본분이나 역할을 의미하고, 직무는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과 임무를 뜻한다. 특히 직무를 맡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섬김 의식에 기초한 봉사이다. 섬김 없는 직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_____한 수용 (4~5, 19)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은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의 직무를 나눌 때 사람의 욕심이나 경쟁을 배제하고 차별이 없도록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분배했다. 이때 추첨 결과 뽑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한 수용이었다. 이것이 최종 결정권이 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회로부터 직분과 직무가 주어질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